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히12:1-2)

서론: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은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 성구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전체 13번에 걸쳐서 복음과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예수보다,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으니 다른 것 아닌 그리스도만 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 교회 교인들만이 아닌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에 다른 것 누리려고 하지 말고 복음만 누려야 된다는 사실을 히브리서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 믿음의 경주를 하라

- 가. 핍박과 환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현장에서 승리한 증인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옵소서(히12:1).
- 나.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걸림돌을 치우고, 나도 모르게 자기 합리화하는 것에서 벗어나 영적 싸움 하게 하옵소서.
- 다. 나 중심과 문제에 빠져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알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승리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히12:3).

2. 누구를 바라보느냐?

- 가. 사탄과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 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다른 것으로 각인된 것에 벗어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히12:2).
- 다. 나에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제자로 서게 하옵소서(롬5:8).

결론: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단어이고, 믿음은 인간의 단어입니다. 내가 믿지만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눈과 귀와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고, 어느날 보이고, 듣고, 믿어지게 됩니다. 믿음의 시작이 그리스도이고, 믿음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뿌리와 믿음의 줄기, 믿음의 열매도 그리스도입니다. 내 믿음의 목표와 방향, 모든 삶의 초점과 완성도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